

GROWTH RESEARCH

2025.08.07 (목)

[폴더블 산업보고서]

애플도 갑니다.

“폴더블”

Analyst. 한용희, 박현성, 강동재



목차

Part 1. 폴더블 폰 시대의 본격 개막

Part 2. 애플 폴더블 아이폰 출시 공략법

Part 3. 폴더블 밸류체인 내 수혜주

기업분석

비에이치(090460)

파인애플(441270)

Intro

이제 진짜 폴더블 폰의 시장이 펼쳐진다

폴더블 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중국 제조사들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26년 9월 애플이 아이폰18 라인업 중 하나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더블 폰 시장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폴더블 폰의 완성도가 낮을 것을 우려하여 폴더블 폰의 출시를 미뤄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존 플레이어들이 협력사와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갤럭시 Z 폴드 7의 경우 접었을 때 두께가 8.9mm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갖추게 되었다.**

때문에 애플도 그동안 미뤄왔던 폴더블 폰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로 인해 폴더블 폰 라인업이 iOS까지 확장되어 산업 전반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며, 시장 자체의 성장으로 인해 폴더블 아이폰향 납품 기업뿐만 아니라 폴더블 밸류체인 전반의 모든 기업에 외형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애플의 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다시 주목받게 된 폴더블 폰 시장을 돌아보고 폴더블 아이폰 출시의 수혜를 받는 기업을 조명한다.**

Part 1. 폴더블 폰 시대의 본격 개막

애플 + 폴더블
= 시장을 키우는 메기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각축장이었던 폴더블 폰 시장에 애플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온다. 시장의 관측과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의 동향을 종합하면, 2026년 9월 출시될 아이폰18 라인업 중 하나로 폴더블 폰이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향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납품을 위해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내년 출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폴더블 폰의 소비자
수용성이 높아지는 중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그동안 진입을 막아왔던 장벽들이 상당수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애플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시장이 추측하기로는 완성도 이슈가 있었다. 디자인적 완성도를 중시하는 애플은 폴딩 시 두꺼움, 힌지의 완성도 문제와 디스플레이 주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폴더블 폰의 완성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디스플레이 두께 및 주름과 힌지의 완성도 문제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제품 출시를 준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 아이폰은 갤럭시 Z 폴드와 유사한 형태로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의 Book-style 디자인으로 내부 디스플레이는 7.8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는 5.5인치에 가격은 1,999달러(약 27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 Z 폴드 7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내부 8인치, 외부 6.5인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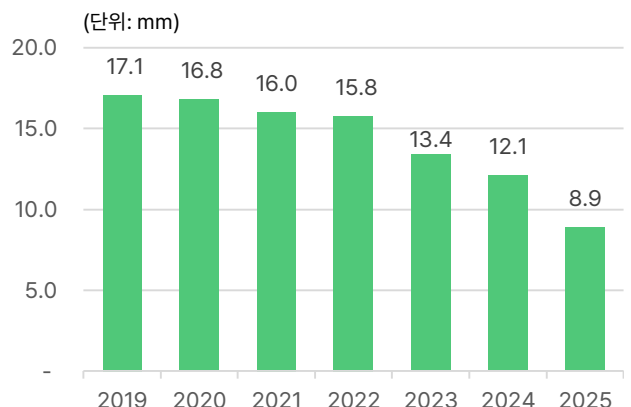
폴더블 아이폰 예상 렌더링



자료 : AppleInsider

그로스리서치 GROWTH RESEARCH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최대 두께 추이



자료 : 삼성전자, 그로스리서치

가장 많은 판매량이
기대되는 폴더블 아이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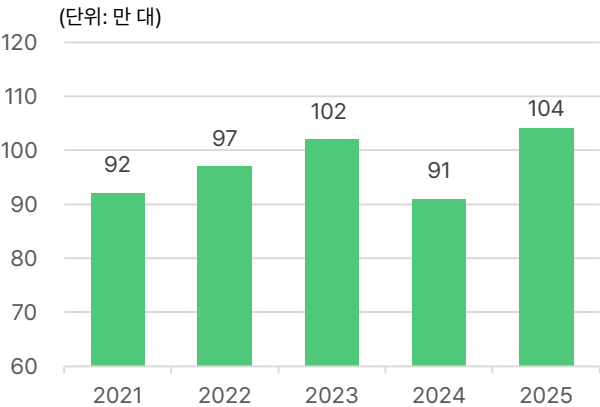
JP모건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2027년 기준 연 1천만대 초반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2029년에는 연 판매량 4천만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삼성의 갤럭시 Z 폴드/플립 7도 올 7월 국내 사전판매에서 104만대가 팔려 기존 최고 기록인 102만대를 넘어섰다. 인도에선 사전판매 48시간 만에 21만대가 팔려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추가 생산에 돌입했으며, 유럽에선 전작 대비 사전판매가 50%, 대만에선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에서의 사전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했다.

이처럼 폴더블 폰의 시장 확대는 애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 연 말 세번 접히는 폴더블 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구글은 8월 20일 열리는 메이드 바이 구글 2025 행사에서 픽셀 폴더블 폰의 세번째 모델 ‘픽셀 10 프로 폴드’를 공개할 예정이며, 화웨이는 폴더블 폰 ‘메이트 X6’를 11월에, 트라이폴드 폰의 두번째 모델 ‘메이트 XT2’를 9월 출시하여 전작의 성공 사례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국 오포의 ‘파인드 N5’, 아너의 ‘매직 V5’, 비보의 ‘X 폴드 5’가 Book-style로, 모토로라의 ‘레이저 60 울트라’, 화웨이의 ‘퓨라 X’가 클램셸 형태의 플립 폰으로 출시됐다.

화면을 하나 둘 늘리는
뚜렷한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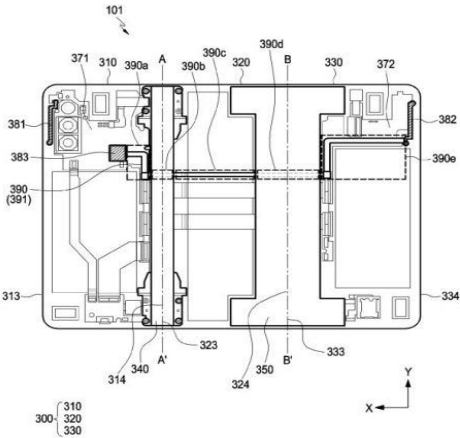
이처럼 기존에는 bar형 스마트폰만 내놓던 애플은 폴더블 폰을, 화면이 두 개인 폴더블 폰을 내놓는데 그쳤던 삼성전자는 트라이폴드 폰을 출시하며 폴더블 폰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확장되고 있다. 폴더블 폰의 확장에 발 맞춰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힌지 등 폴더블 폰 위주로 쓰이는 부품 및 소재 밸류체인이 수혜가 기대된다.

갤럭시 Z 시리즈 사전판매량 추이



자료: 삼성전자, 그로스리서치
그로스리서치 GROWTH RESEARCH

삼성전자 트라이폴드 특허 이미지



자료 : WIPO

Part 2. 애플 폴더블 아이폰 출시 공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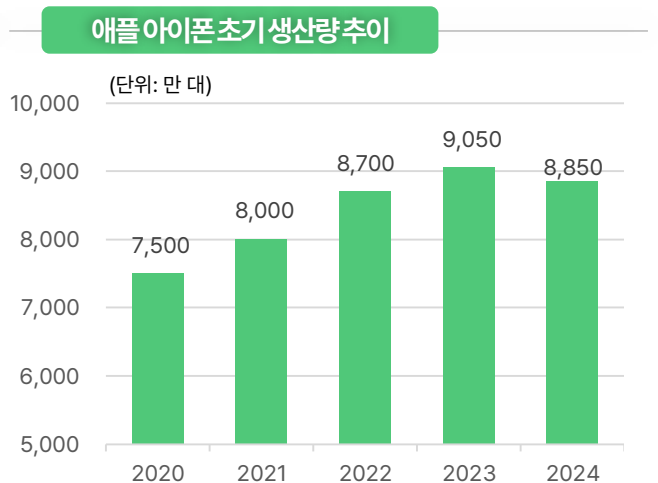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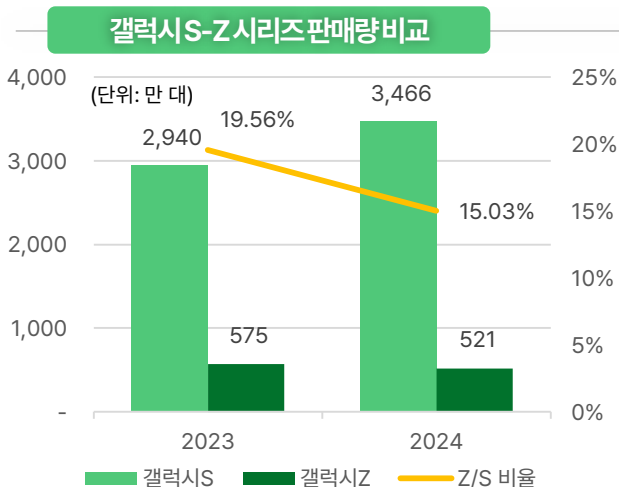
직접수혜 간접수혜
모두 기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경우 애플의 공급망에 편입되는 업체들 위주로 직접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폴더블 아이폰향 매출이 발생하진 않지만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성장하여 애플향 매출이 없는 폴더블 밸류체인 타 기업도 간접수혜를 입을 것이다.

키워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한지

국내 상장 기업 중 직접수혜를 입을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폴더블 OLED 관련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지 납품 기업을 꼽을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초기 폴더블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충남 아산의 A3 공장에 애플향 폴더블 디스플레이 전용 생산라인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하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라인의 CAPA는 6세대 유리원장 기준 월 3만 5천장 규모로, 7인치대 폴더블 OLED 기준 연 1,500만대가량으로 알려졌다.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의 예상 판매량은 약 800만대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시장 점유율 5~60%대를 기록 중인 갤럭시 Z 시리즈의 2023년 판매량 575만대, 2024년 판매량 521만대보다 큰 수량이다. 따라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전용 생산라인 구축은 폴더블 아이폰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기대하고 미리 생산능력을 확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매량 추정치와 생산라인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 애플에 납품하는 폴더블 부품 공급 업체들은 기존 삼성 갤럭시 Z 또는 중국 폴더블향 매출보다 더 큰 규모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그로스리서치

자료: 언론보도 종합, 그로스리서치

Part 3. 폴더블 밸류체인 내 수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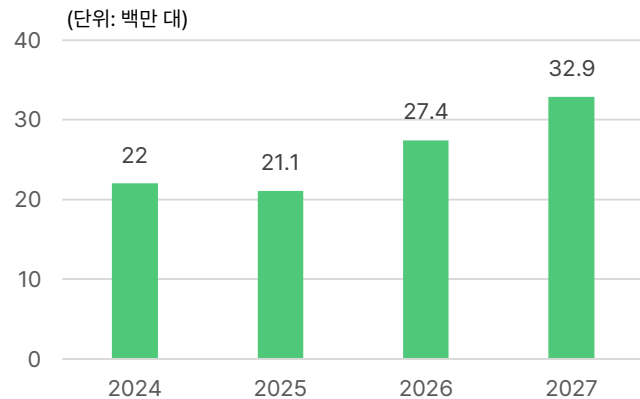
밸류체인 수혜주
OLED, FPCB, 힌지

삼성전자의 25년 하반기 갤럭시 Z 7시리즈 신제품과 26년 애플의 1세대 폴더블 아이폰 출시의 수혜를 휴대폰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공급 업체, 힌지 제조 업체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더블에 필수적인
힌지 업체의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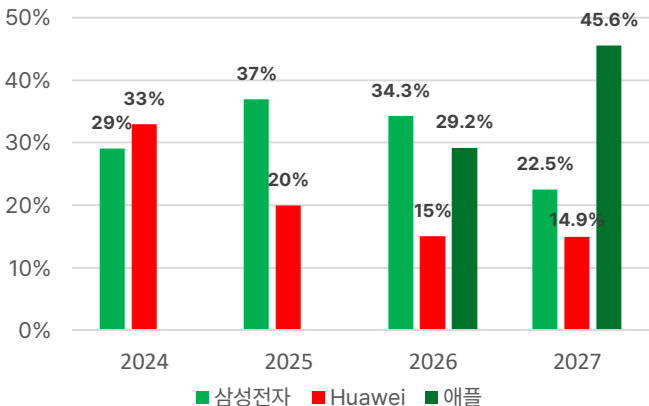
DSCC에 따르면 전 세계 폴더블 출하량 예상치는 '25년 약 2,100만 대에서 '26년 2,700만 대, '27년 3,300만대로 연평균 2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치가 상향된 이유는 애플이 '26년 폴더블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가 양분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26년 하반기 폴더블 제품을 출시하면 '26년 기준 최대 30%까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애플의 신규 시장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Q가 늘어나는 힌지 제조 업체들이다. 힌지는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로 분류된다. 내장힌지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내부에 위치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을 접고 펼 때 화면이 매끄럽고 평탄하게 유지되도록 지지하고 보호한다. 외장힌지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외부에 위치하여 눈에 보이는 경첩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기업인 파인애플은 내장힌지, KH바텍은 외장 힌지를 공급한다. 그 중 파인애플은 애플의 폴더블 파트너로 중국 경쟁사 1곳과 경쟁 중이지만 신규 라인 투자에 대한 경쟁사의 미미한 대응과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애플에 요구 등의 요인으로 독점 공급 파트너로 체결될 확률이 높다. 애플의 예상 출하량 800만 대와 추정 점유율 50%, 힌지 ASP를 바탕으로 추산한 파인애플의 '26년 매출은 Base Case 4,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폴더블 출하량예상



자료 : DSCC, 그로스리서치

폴더블 폰 예상 점유율 추이



자료 : DSCC, 그로스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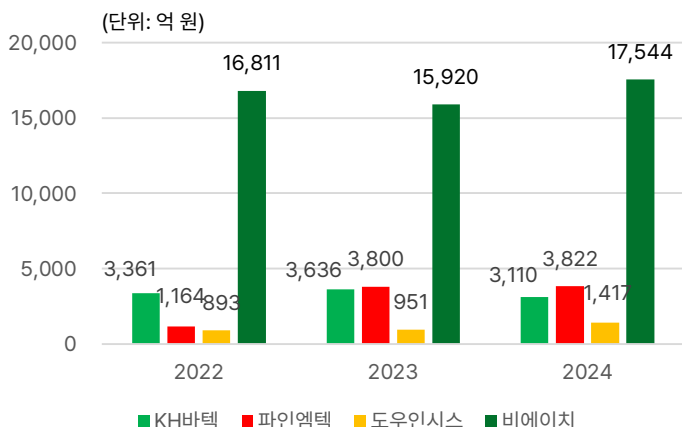
UTG 수요 증가

폴더블 폰은 기존 바(Bar) 스마트폰과 달리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주로 OLED 기반의 UTG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며 크기와 곡률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제품 단가 또한 약 200~250 달러로 일반 OLED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25년 2분기 기준 **폴더블 OLED 글로벌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약 52%로 1위이다.** 애플의 폴더블 폰에 UTG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닝의 협력사인 '유티아이'**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폴더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향 **폴더블용 7~8인치 UTG와 대면적 UTG를 가공하는 '도우인시스'**의 수혜도 기대된다.

진입장벽이 높은 FP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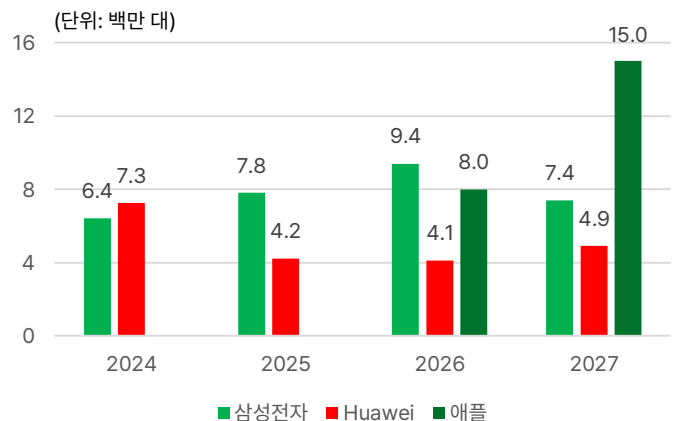
FPCB(연성 인쇄회로기판) 또한 수혜가 예상된다. FPCB는 구부릴 수 있는 회로 기판을 의미한다. 딱딱한 회로기판(PCB)과 달리 FPCB는 주로 PI 필름의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해 구부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FPCB는 디스플레이 내부와 힌지 주변 회로를 연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휴대폰의 전원을 키거나 터치, 센서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 FPCB 제조사 비에이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사로 높은 비중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은 공정 난이도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원재료로 FCCL, PI 필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밀도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가 크다. **애플의 예상 출하량 800만대와 동사의 점유율 80%, 제품 ASP 약 18,000원을 적용하면 비에이치의 관련 매출은 약 1,100억으로 기대된다.**

폴더블 관련 기업 매출 추이



자료 : DART, 그로스리서치

주요 제조사별 폴더블 폰 예상 판매량



자료 : 그로스리서치

Part 4. 관련 기업

폴더블 관련 기업

기업명	기업 개요	시가총액
비에이치 (114090)	• '99년 설립, '07년 코스닥 상장, 23년 코스피 이전 상장 • 주요 사업: FPCB와 그 응용부품,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생산 • 매출 비중: FPCB 80%, 전장사업부 20% • 최근 베트남 전공정 생산라인 확보로 운송비용과 인건비 절감 기대 • 차량 내 무선충전기 전, 후열 탑재 채택률 지속적 성장	5,180억원
파인애플 (051360)	• '22년 9월 인적분할, '22년 10월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폴더블 및 일반 스마트폰용 내장, 외장 힌지 생산 • 매출 비중: 내장힌지 84%, 자동차용 모듈 13% • 주요 고객사: 삼성디스플레이, 북미 업체 폴더블 SCM을 두고 중국 1개사와 경쟁	4,041억원
유티아이 (179900)	• '10년 설립, '17년 9월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 • 매출 비중: 카메라윈도우 84%, 기타 16% • 강화유리 공급업체 코닝의 협력사로 북미 업체 공급 계약 기대 • 2세대 UTG로 분류되는 UFG에 대한 기술과 IP 보유 中	4,289억원
도우인시스 (484120)	• '10년 설립, 25년 7월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UTG(초박형 강화유리) 생산 • 매출 비중: UTG 91%, 기타 9% • 삼성디스플레이향 7~8inch UTG와 태블릿용 대면적 UTG 가공 • 독일의 커버유리 공급사 쇼트의 후가공 협력사	3,695억원
KH바텍 (060720)	• '92년 설립, '02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휴대용 IT 디바이스 내외장 부품 생산 • 매출 비중: 조립모듈 56.5%, 기타 IT 제품 24%, 알루미늄 19.5% • 삼성전자의 라인업 확대와 슬림화 과정으로 관련 부품 P, Q 증가 예상 • 폴더블 폰 시장 확대에 의한 모멘텀 수혜주	2,822억원

비에이치(090460)

폴더블 FPCB의 단가는 2배 이상

투자포인트

삼성으로부터 인정받는 FPCB 기술력

FPCB 강자이자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3년 코스피로 이전상장 했다. **IT기기 부품인 연성인쇄회로기판(FPCB)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휴대폰 무선충전기를 제조 및 판매**하며,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FPCB 80%, 전장사업부 20%이다. 주요주주는 이경환 외 6인이며 지분율은 21.37%이다. 또한 자사주로 10.59%를 보유 중이다.

폴더블 아이폰의 외형 성장 효과

폴더블 아이폰-삼성디스플레이-비에이치로 이어지는 낙수효과

동사는 휴대폰, 태블릿 등 IT기기에 탑재되는 유연한 형태의 기판인 FPCB를 생산한다. 그 중에서도 딱딱한 경성 기판과 유연한 기판이 합쳐진 RFPCB는 적층 형태의 BU와 함께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67.72%를 차지한다. RFPCB는 OLED가 탑재되는 스마트폰에 주로 쓰인다. 또한 동사 매출의 대부분의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폴더블 아이폰의 OLED를 독점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로서 큰 수혜**가 기대된다. **폴더블용 FPCB는 타 제품 대비 단가가 2배 이상 높다.** 또한 폴더블 아이폰향 예상 출하량이 '26년 800만 대, '27년 1,500만 대로 **물량도 큰 만큼 P와 Q의 동시 증가가 기대된다.**

더 많은 태블릿과 노트북에도 OLED가?

폴더블 아이폰이 끝이 아니다

현재는 IT기기 OLED용 FPCB의 매출이 저조해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26년부터 시작되는 북미 업체의 폴더블-태블릿-노트북으로 이어지는 연타석 OLED 홈런을 기대해 볼만 하다.** 북미 업체의 태블릿은 2024년부터 최고 사양 라인업인 아이패드 프로 13(M4)부터 OLED를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아이패드 미니와 맥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를 시작으로 좀 더 선명하고 색표현이 잘 되는 OLED를 채택하기 시작한 이상, 북미 업체 중/대화면 기기의 하위 라인업에도 OLED 채택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더 많은 라인업에 OLED 채택이 현실화 될 경우 **북미 업체의 OLED 채택 수혜 기대감으로 멀티플 상승이 기대되며, 실제 납품 이후 외형 성장이 뒤따를 것이다.**

비에이치 주요 제품-RFPCB



'22~'24년 매출/영업이익 추이



자료 : 비에이치, 그로스리서치

자료 : 비에이치

파인애플(441270)

한지에 매출 7,800억?

투자포인트

내장 힌지 제조기업

폴더블 디스플레이 백플레이트 모듈과 디바이스용 내장 힌지 제조

동사는 '22년 인적분할되어 10월에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용 기구부품인 백플레이트 모듈과 폴더블 디바이스용 내장 힌지다.** 매출 비중은 해외 87%로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비율은 30.74%이며 자사주 비중은 0.04%이다.

삼성의 트라이폴드와 북미 업체 폴더블 이중수혜

하반기 삼성 신제품과 26년 북미 세트 업체의 시장 진입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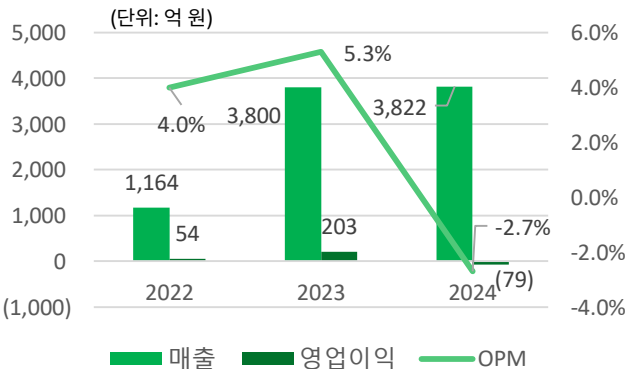
동사의 **단기적 성장 모멘텀은 '25년 하반기 삼성의 폴더블 7세대 신제품 출시이고, 장기적 성장 모멘텀은 26년 북미 업체의 폴더블 시장 진출**에 기인한다. 특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를 출시한다면 기존 폴더블에서 파생되는 해당 힌지 1개에서 2배로 늘어난 수요창출이 가능하고 필요 기술 수준 또한 높아져 기존 힌지 가격 80~100달러보다 **높은 P와 Q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북미 업체의 폴더블 스마트폰 SCM 선정사로 유력한 가운데 중국 경쟁사 1곳과 경쟁 중이긴 하지만 **최소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별 매출

Base Case와 Bull Case

앞서 제시했던 북미 업체의 예상 출하량을 바탕으로 동사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 여력을 측정해보았다. Base와 Bull Case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26년 북미 업체의 예상 출하량은 약 800만대 정도로 예상된다. **Base Case**에서는 북미 업체의 예상 출하량 800만 대의 점유율 50%, 힌지 가격 12만원을 기준을 가정하였고 **Bull Case**에서는 점유율 70%와 삼성전자의 트리폴드 출시 후의 힌지 가격 상승을 고려한 14만원을 가정하였다. **Base Case 매출은 4,800억, Bull Case 매출은 7,800억원으로 24년 매출 3,8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6%, 100% 상승한 수치다.**

최근 3개년 수익성 추이



자료 : DART, 그로스리서치

Z-Foldable Dual Hinge



자료 : 파인애플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본인의의견을정확히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쓰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